올해 전국 대회를 3차례나 휩쓴 송원여상 배구팀이 내년부터 함께 뛸 신입후배인 송원여중 3학년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윤권영 감독, 이보라(2년), 김세련, 이보라, 나윤주, 송선아(이상 여중 3년), 심은혜(1년), 김현아(1년), 이인아(여중 3년), 백목화(2년), 양미리(여중 3년), 이보람(2년), 송성기 코치.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센터 백목화(2년)가 지난 7일 오후 송원여상 체육관에서 열린 단체 훈련에서 공격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우리고장서 열리는 내년 체전… "꼭 우승해야죠"

스포츠 포커스

## 제 2전성기 누리는 광주 송원여상 배구팀

6인제 배구에서 리베로(수비전담 선수)까지 포함해 전체 선수는 달랑 7명.

이중 한명이라도 부상을 입으면 대회 출전은 불가능하다. 바로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송원여상) 배구부의 현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팀은 후보 선수가 없잖아요, 모두 주전이예요" 라며 활짝 웃는다.

밝고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앞세운 송원여상 배구팀은 올해 단 7명의 선수로 전국대회 3관왕에 등극했다.

지난 3월 춘계 전국 남녀 배구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4월에 열린 제 40회 대통령배 배구대회에서도 여고부 우승을 차지했다.

### '7인의 여전사' 25년만에 체전 우승 일궈

송원여상은 이처럼 후보 없는 아슬아슬(?)한 팀이지만 실력은 전국 최강.

올해 마지막 전국 대회인 제 87회 전국체전 우승은 이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백미' 로 꼽힌다.

지난 81년 우승 이후 무려 25년만에 전국체전 정상에 오른 송원여상 배구부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총 인원 7명 중 3명이 청소년 대표로 뽑혀 대회 3일전에 팀에 합류한 것. 하지만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땀방울을 흘렸기에 쟁쟁한 팀들을 누르고 우승컵에 입맞춤을 할 수 있었다.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가 느껴지는 지난 8일 오전, 송원여상 배구부를 만나봤다.

**▲훈련도 실전처럼**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마 위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올해 전국대회가 모두 끝나 잠시 휴식을 가질 법도 하지만 강훈련은 계속됐고, 선수들의 파이팅 소리는 체육관이 무너질 듯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훈련은 오후 1시가 돼서야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점심 식사와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또 다시 실전같은 연습이 이어졌다.

오후 7시 이후에는 자유시간.

그러나 저녁 식사후 밤 8시부터 선수들 스스로가 1~2시간씩 자율훈련을 계속한다는 게 팀 주장 이은아(3년)의 귀띔이다.

**▲키 때문에 고민이예요**

연습이 끝난 뒤 올해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된 이보람, 백목화, 이보라(이상 2년)와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 셋은 팀 공격을 책임지는 전천후 공격수다.

고교 2년생 답게 앳된 얼굴이지만 키는 모두들 장신이다. 자신의 키가 가장 작다는 백목화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77cm 밖에 안돼요"라고 말했다.

이보라와 이보람은 각각 180cm와 184cm의 큰 키를 자랑한다.

### 하루 8시간 실전같은 연습…우승 원동력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86cm는 돼야 명함을 내민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도 잘 자라지 않는(?)키 라고 한다.

**▲친구들 하교하는 모습 가장 부러워**

한창 꿈많고 멋부릴 10대 소녀들의 합숙 훈련이 안타까워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보라가 먼저 "우린 훈련시간인데 친구들은 집에 가는 것 보면 솔직히 너무 부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옆에 있던 백목화는 "그래도 최고의 선수가 돼야겠다는 목표를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 며 여고생답지 않은 성숙한 말로 질문을 이어갔다.

**▲전국체전 2연패 해야죠**

내년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웃음기 가득하던 얼굴에 사뭇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보라는 "우리 고장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꼭 우승을 하고 싶다" 면서 "언니(은아, 상희)들 두 명이 졸업을 해 전력 차질은 예상되지만, 팀워크로 극복해 나가겠다" 며 각오를 다졌다.

보람이와 목화도 "우리 셋이 힘을 모아 신입 후배들과 열심히 훈련한다면 전국 어떤 팀도 두렵지 않다" 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부터 송원여상 배구팀을 맡은 윤권영 감독은 "신입생들이 졸업한 두 선수의 50%만 해낸다면 전국체전 2연패를 못하란 법도 없다" 고 힘을 보탰다.

### 배구 지망생 없어 얇은 선수층 고민

**▲얇은 선수층 때문에 고민**

올해 3학년인 주장 이은아(라이트)와 조상희(리베로)가 졸업한다.

그동안 팀의 중심에 섰던 멤버다. 7명 중 이들 두 명이 빠졌으니 주전은 5명뿐.

다행히 송원여중 3학년 6명이 올라와 빈 자리를 메울 수 있게 됐지만 이들의 기량은 이제 걸음마 수준.

윤 감독은 "갈수록 배구 지망생들이 줄어들다보니 선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팀이 해체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고 걱정을 드러냈다.

윤 감독은 내년 여고배구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주 근영여고와 한일전산여고 등 라이벌 팀들의 경우 멤버 변화도 없고, 선수층도 두터워 전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 이라며 "결코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송원여상 올 주요성적**

1. 춘계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2. 제 40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우승
3. 경북 상주 비치발리볼 대회 우승
4. 울진 해양스포츠 제전 우승
5. 제 87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본사 시판부(062)222-8111

현대모터리언자동차정비공업사 | (주)송정자동차정비 | 완도항 | 남원추어탕 | 다비치안경(충장1가점) | 토탈카세차장 | 기아자동차큐서비스점
대표 김 영 석 ☎(062)673-8096 | 대표 이 병 훈 ☎(062)222-4455 | 대표 정 원 이 ☎(062)673-4358 | 대표 신 문 갑 ☎(062)234-8585

(주)등광정공 | 1급뉴흑석자동차정비공업사 | 이 가 원 | 모든PC테크 | 한마음경매 | 열린종합공구 | 삼양공업사
대표 김 교 신 ☎(062)946-0180~1 | 대표 채 명 관 ☎(062)956-2217 | 대표 이 인 택 ☎(062)366-2900 | 대표 박 기 자 ☎(062)572-5282 | 대표 정 완 채 ☎(062)265-9723 | 대표 박 규 태 ☎(062)674-0031~33

오크통호프 | 세 인 식 품 | (주)한백자동차정비 | 제일강재(주) | 송 산 | (주)거림화학 | 봉선식당 | 예일장식리모델링 | 성진자동차건설기계공업(주)
대표 강 정 숙 ☎(061)353-0097 | 대표 김 정 현 ☎(061)351-0588 | 대표 최 용 한 ☎(062)952-6966~7 | 대표 최 윤 상 ☎(062)351-0909 | 대표 이 호 ☎(062)946-1250 | 대표 백 순 례 ☎(062)671-2181 | 대표 김 선 호 ☎(062)262-0435 | 대표 박 규 태 ☎(062)672-1504~5

백옥목욕탕 | 우림 | 1급대일자동차정비공업사(주) | 혜지유통 | 칼국수이야기 | 보성모터스 | 테라뷰티살롱 | 썰보네집 | (주)광주자동차공업사
대표 유 길 언·윤 정 미 ☎(061)351-5697 | 대표 서 오 순 ☎(062)682-4287 | 대표 한 경 성 ☎(062)263-0976 | 대표 박 규 태 ☎(062)676-8400

영광버섯매운탕 | 배드민턴스포츠 | (주)하남자동차공업사 | 밀 알 통 상 | 갑골오리(광주본점) | 이종격투기 | 국제무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 아카데미평생교육원 | 꾼 빵 만 두
대표 박 종 률 ☎(061)351-3679 | 대표 이 동 순 ☎(062)951-5500 | 대표 박 기 자 ☎(062)572-5282 | 대표 정 환 담 ☎(062)232-1154 | 소장 김 봉 선 ☎(062)412-3201 | 대표 김 종 삼 ☎(062)941-6873

다모아결혼정보 영광지사 | 봉황석유 | 보성모터스 | 김재준공인중개사 | (유)파워부동산 | 극진가라데 | 대길공인중개사 | 청호나이스 | 소나무
대표 서 금 순 ☎(061)353-9440 | 대표 유 현 식·유 용 ☎(061)834-9559 | 도천동 380-32번지 ☎(062)953-7306 | 대표 김 재 준 ☎(062)652-5885 | 대표 안 호 순 ☎(062)576-4585 | 대표 박 경 순 ☎(011)9615-3652 | 대표 강 형 구 ☎(062)941-0064 | 대표 최 혜 경 ☎(062)525-0009